

## 정부 및 서울시 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 제대로 하라!!

**핵심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노동주요정책 사업을 발표하면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진행하고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단기로 종료되는 사업 / 기간제법상 전환 제외 사유 / 최소인원 채용등 3대원칙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확정했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향후 가능하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서울의료원은 이러한 지침을 무시한 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새서울의료원분회의 우려대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사무관리사, 응급구조사, 사회복지사등 상시 지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7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새서울의료원분회는 70여명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 의료원 및 서울시청에 시정을 요구**

분회는 지난 6월 18일 서울시 정책에 반하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합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수차례 병원 담당자와 논의를 하면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다시 소집할 것을 요구하였고, 서울시에도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의료원은 7월말~8월 초 부서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정규직전환 심의 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분회는 의료원에 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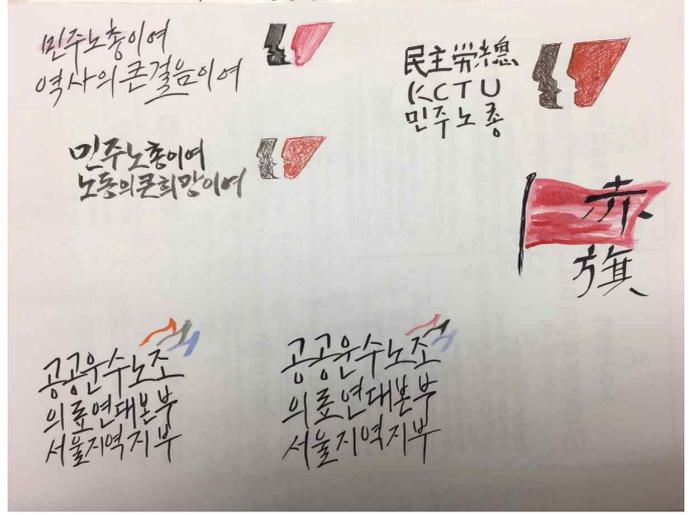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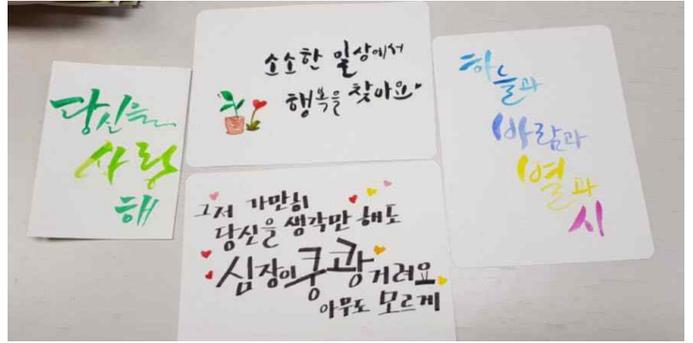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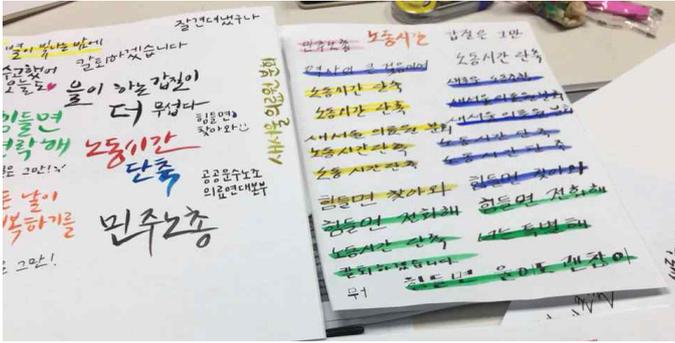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부서장들과의 면담이라는 전제 조건 없이 반드시 소집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인원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새서울의료원분회는 지켜볼 것이다.

이번에도 원칙을 무시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또 다시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분회는 단순히 항의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 의료원의 비상식적인 행위를 바로 잡아나갈 것이다.

**새서울의료원분회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새서울의료원분회 문화 소모임 - 글씨를 연대로



**글씨를 연대로는?** 조합원, 비조합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능한 새서울의료원분회의 문화소모임입니다. 캘리그래피를 배우며 부서내의 현안과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격주 목요일마다 7층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모임에 많은 참가 바랍니다. (다음 모임 8월 9일)

## 새서울의료원분회 독서모임

6, 8월 노동조합 선정도서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전태일 평전>



새서울의료원분회 조합원들은 격월로 자율적으로 모여 사회과학/인권/노동/여성 관련도서를 선정해, 서로 읽은 내용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학습하고 있습니다.

8월 29일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독서모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

노동조합 가입서 찾기 어려우셨다구요?  
이젠 웹으로,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http://bit.ly/새서울\\_노조가입서](http://bit.ly/새서울_노조가입서)



카카오톡 상단에 네오버튼을 누르면 QR코드 스캔이 가능합니다.